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7월 1일 'DMZ열차 타고 통일로, 달려라 평화열차!' 행사를 개최했다. DMZ트레인이 서울역을 출발하자 참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평화통일불교협회 향산 스님(사진 오른쪽)이 철원 평화전망대에서 북녘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



통일바루 회원들이 백마고지역 도착 후 DMZ트레인 경원선 앞에서 밝게 웃고 있다.

통일 불자들, DMZ에 희망 씨앗을 심다

[현장] 민족공동체추진본부, 'DMZ열차 타고 통일로, 달려라 평화열차!'

여기저기 끊긴 다리들, 정돈되지 않은 숲길을 여러 번 지나치면 나타나는 백마고지역.

백마고지는 한국전쟁 당시 최대 전략적 요충지로서 19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이어진 10일간 전투에서 이 산의 주인이 무려 24번이나 바뀌었다고 한다. 그만큼 참혹한 전쟁터였던 이곳에 현재는 'DMZ트레인 경원선'의 종착역이 위치하며, 더 나아가지 못하는 분단현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역사적 아픔이 서려있는 이곳에 통일바루 · 평화통일불교협회 · 조계사 청년회 등 100여명의 '통일 불자'들이 발을 내딛었다. 기대와 좌절이 반복되는 남북정세에도 굴하지 않고, 통일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꿋꿋하고도 의미 있는 걸음이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법타)는 7월 1일 'DMZ열차 타고 통일로, 달려라 평화열차!'를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DMZ트레인을 타고 백마고지역에 도착, 비무장 지대 및 민통선 지역을 둘러봤다.

첫 번째 행선지는 2007년 11월 개관한 '철원 평화전망대'였다. 비무장지대 및 민통선 지역, 북한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멀게만 느껴졌던 북한 땅을 눈으로 볼 수 있다니 참가자들의 기대는 더욱 커졌다.

모노레일을 타고 전망대에 오르자 철원평야와 강산 저수지가 시야에 펼쳐졌다. 참가자들은 곳곳을 누비며 북한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려 애를 썼다. 하지만 보안상 사진 한 장으로도 남길 수 없는 현실에 또 한 번 안타까워야만 했다.

그 한편에서 북녘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스님이 있었다. 한 마디 말도 없이 그저 바라보다 옆에 서 있던 할아버지에게 "저~쪽이 북한이지요"라고 말하며 괜스레 다시 한 번 북한을 향해 손짓한다.

통일바루 · 평불협 등 100명 참석
DMZ경원선 타고 백마고지역 도착
철원 평화전망대 · 노동당사 순례
통일 필요성 다시 한 번 환기시켜

평화통일불교협회 향산 스님은 북한과 개인적 인연은 없지만 '민족'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통일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어릴 때부터 통일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살아야하는데 이유가 필요한가요? 북한과 남한이 통일돼야하는 것도 여러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이 국토는 통일이 안 되면 앞날이 없어요."

눈으로 직접 본 후 통일에 대한 간절함이 더욱 짙어진 것일까. 참가자들은 하행하는 모노레일 안에서 다함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불렀다. 권홍섭(86) 할아버지가 선창하자 모두가 약속한 듯 합창을 시작했다. 전망대와 멀어질수록 노랫소리는 더욱 커지며 안타까움은 배가 됐다.

권홍섭 · 권혁채(86) 할아버지는 "같은 민족으로서 부둥켜안지도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바라봐야한다는 사실이 너무 슬프다. 빨리 통일이 돼서 다함께 잘 사는 한민족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친구이자 종친 사이라는 두 할아버지는 "통일되기 전에 절대 죽지 말자"며 손을 꼭 붙잡고 약속한 후에야 평화전망대를 뒤로 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월정역으로 향했다. 월정역은 서울과 원산을 잇던 경원선 철마가 잠시 쉬어가던 곳이다. 역의 바로 맞은편에는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간판 아래 6.25전쟁 당시 이 역에서 마지막 기적을 울렸던 객차의 잔해와 유엔군 폭격으로 부서진 인민군 화물열차가 앙상한 골격을 드러낸 채 누워있다. 참가자들은 이곳에서 철로를 따라 걷고, 녹슨 객차를 만져보며 경원선이 다시 원산까지 이어지는 날을 위해 기도했다.

이번 행사에는 특히 자녀들의 손을 잡고 참가한 부모님들이 많았다. 분단 현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고 싶다는 게 이유였다.

조계사 청년회 임광수(42) · 이진현(38) 부부는 "우리 또는 아이들 세대에 통일이 될 거라 생각한다. 그 전에 아이들이 분단 현실을 올바로 알아야 통일 시대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참가했다"고 말했다. 부모님과 함께 일정을 마무리한 임성우(12 · 청량초) 학생도 "북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게 됐다. 멀리서나마 북한의 모습을 보니 좋은 자연환경을 갖췄을 것 같다.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직접 보고 싶다"고 웃어보였다.

이날 행사는 철원역 및 철원 구시가지, 노동당사를 거쳐 백마고지역에 돌아오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비록 철마는 끝까지 달리지 못했지만 눈 감는 날까지 통일을 서원하겠다는 어르신들에게서, 또 북한이 한 가족임을 알게 됐다는 아이들에게서 미래 한반도의 희망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자녀에게 갈등 · 이념 물려주시겠습니까?"

Interview

민추본 사무총장 진효 스님



"통일은 민족의 염원인 만큼 불교계 내에도 통일을 기다리는 여러 불자들이 있습니다. 그 흩어진 통일염원들을 한 곳에 모아 더 큰 발원으로 일으키기 위해 오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사무총장 진효 스님〈사진〉은 이번 행사가 참가자 뿐 아니라 불교계 및 일반사회에 통일의 필요성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수의, 또 불교계 내부의 행사지만 작은 걸음이 모여 큰 걸음을 내딛을 수 있길 기대한다는 뜻이다.

또한 진효 스님은 가족 단위 참석자들이 늘어난 것에 대해 고무적인 일이라 평가하며, 어린 아이들에 대한 통일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이들에게 분단 현실과 통일 필요성을 가르쳐 주려는 부모들의 성숙된 모습이 매우 보기 좋습니다. 우리는 이데올로기 시대에 살았지만 아이들에게는 갈등과 이념을 물려줘선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기에도 부족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박아름 기자

불교국가 연방승가회 회장단 5~7개국 승정 증명법사 참석 확정

국제 승려 具足戒 금강계단 제5회 비구, 비구니계 수계 의식

부처님 당시의 상좌부 출가의식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와 종교법인 세계불교 법왕청에서는 400여 군소종단을 불문 어느종단 스님이든 출가 법납이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어도 먹물옷 다시금 여미며 초발심에 행자승의 마음으로 되돌아가 새롭게 발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대승적 큰 뜻, 큰 마음으로 미얀마 연방정부의 종교성과 미얀마 연방승가회의 자문과 도움을 받아 법왕이신 우꾸마라 종정큰스님을 대화상을 모시고 구족계를 내려주실 三師 7尊證 大元老 큰스님들과 500여 증명 존증아사리들의 독경속에 상좌부 불교승려로 거듭나는 장엄하고 여법한 야단법석, 국제불교 금강계단을 마련했습니다.

구족계 계첩을 미얀마 연방승가회에서 정식 수여함

- 일 시 : 10월 11일 출발 6박 7일 일정
- 신청기간 : 7월 31일까지
- 참가서류 : 사진 부착된 이력서 1통 여권
- 참가신청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68(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우. 03158
- 장 소 : 미얀마정부 종교성내 양곤승가대학 5일간 입교함
- 문 의 : 011-229-6061

■ 주최 :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교법인 : 세계불교법왕청 / ■ 후원 : 미얀마 연방정부 종교성. 미얀마 연방승가회